

[산업]
삼성전자·삼성메디슨
'크리스탈라이브' 개발
태아 검사 정확도 높여
04



Life

[유통]
펫 휴머니제이션 '봄'
여행·쇼핑몰·스파 등
반려동물 전문관 늘어
11



조선호텔 세탁소 옛날 모습.



/조선호텔 조선호텔 세탁소 현재 모습.

/연합뉴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탁소 104년 역사 마감한다

1914년 조선호텔 개관부터 시작
7월 끝으로 폐점... 투숙객에 집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탁소인 조선호텔 세탁소가 문을 닫는다.

1914년 조선호텔 개관부터 함께 해온 한국 최고(最古)의 세탁소 '조선호텔 세탁소'가 7월을 끝으로 104년 역사를 마감한다.

조선호텔은 오는 7월 31일 지하 1층에서 운영해 온 세탁소를 폐점하고 투숙객 혹은 피트니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세탁 서비스만 이어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호텔 세탁소는 최신 세탁 설비를 갖춘 곳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직원들이 어떤 세탁물이라도 새 옷처럼 깨끗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명동에 위치해 있고, 가죽과 모피 등 고급 소재 의류와 잡화까지 취급해 인기가 높았다.

조선호텔 세탁소가 문을 닫으면 외부 고객도 받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특급 호텔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만 남게 된다. 그러나 조선호텔 세탁소와 달리,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고가 의류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롯데호텔, 신라호텔, 포시즌

스호텔, 콘래드호텔 등 서울 시내 주요 5성급 호텔들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외부 고객의 세탁물을 받지만, 외부 세탁 업체에 보내 처리한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호텔은 투숙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인데 외부 고객들에게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투숙객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기본에 충실하 하고자 폐점을 결정했다"며 "세탁소 자리는 수유실로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일제 훼손 덕수궁 제 모습 찾는다

광명문·돈덕전 등 80년 만에 복원
2038년께에 전체 완료될 계획

100년 전 고종 승하 이후 제 모습을 잃어버린 덕수궁의 복원 사업이 다시 이어진다. 2010년 덕수궁 내 중명전 복원, 2014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탈바꿈한 석조전에 이어 광명문, 돈덕전, 선원전 등 일제에 의해 변형, 왜곡된 건축물들이 원래 모습을 되찾을 전망이다. 덕수궁 복원은 앞으로 20년 후인 2038년께에야 전체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전체 복원 중 초반 단계에 있다.

문화재청은 19일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덕수궁 복원 사업을 재차 시작했다. 덕수궁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경술국치인 1910년까지 13년간 대한제국의 궁궐로 사용한 곳이다. 당시는 중명전과 옛 경기여고가 있던 자리까지 포함된 넓은 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수궁의 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려나가고, 궁궐의 전각들은 훼손(毀撤)됐다. 1920년대에는 현재의 덕수궁과 미국대사관 사이에 담장 길이 조성돼 덕수궁이 둘로 쪼개지게 됐다. 조선왕조의 근원인 선원전 영역은 총독의 손에 넘어가 조선저축은행 등에 매각됐으며, 선원전은 헐려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덕수궁 중심영역의 공원화 계획으로 돈덕전마저 헐려나가고, 함녕전의 정문이었던 광명문도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관으로 변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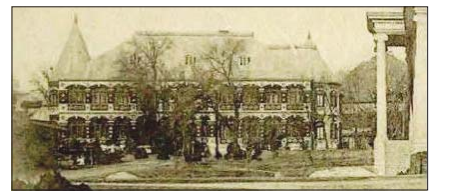
이번 복원계획의 시작인 광명문은 올해 말까지 제자리로 이전된다. 이 문은 일제강점기 영동하게 옮겨져 현재는 휴게공간 인근에 자리해 있다. 문화재청은 2016년 원래 자리를 발굴한 결과, 광명문과 배치형태가 같은 건물지 1동을 확인했다. 건물지는 12기의 적심시설을 가진



덕수궁국장화첩(1919년) 광명문.



현재의 광명문 모습.



돈덕전과 석조전. 1911년 조선총독부. /메이얼리포트



돈덕전 복원 조감도.

정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지로, 경운궁(덕수궁의 옛 이름) 궁전 배치도(1910년) 상의 광명문지와 그 위치와 배치상태 그리고 평면형태가 같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 발굴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도를 완료했다.

광명문의 현재 자리에 전시 차원으로 비치된 유물들은 올해 안으로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창경궁 자력주(국보 제229호)와 신기전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대전)로 옮겨 보존처리하고, 흥천사명동종(보물 제1460호)은 부피와 중량을 고려해 경복궁 권내각사지에 임시 처리장을 만들어 보존처리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남산1호·북악터널 화재 대비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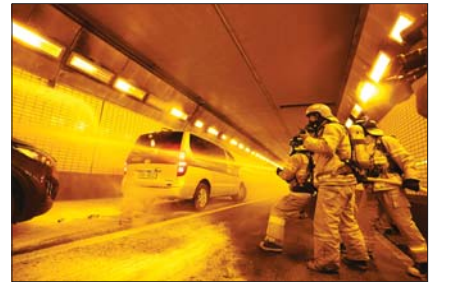
소방서·경찰서 인력 동원해 사고대비

서울시는 19~20일 남산1호터널과 북악터널에서 터널 내 차량 화재사고를 대비해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서울시 공무원, 중부·용산·성북소방서, 경찰서 등 72명의 인력과 소방차 15대가 동원된다.

19일 훈련은 오전 10시 20분께 남산1호터널 내 한남동방향 150m지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앞차를 추돌해 발생한 화재사고를 가정해 진행된다.

이 훈련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남산1호터널 한남동방향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대신 필동방향 각 1차로를 이용해 상·하행 통행이 가능하다.

20일 훈련은 오후 2시 20분께 북악터널 내 평창동방향 100m지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과속으로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해 승용차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열린다. 이 훈련으로 20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북악터널은 평창동 방향 1개 차로가 통제된다.



19일 서울 남산1호터널에서 열린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에 참가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도로터널은 지난해 기준 2382곳이 있으며, 이중 연장 500m 이상 터널은 1279곳으로 53.7%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터널은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돼 질식사 등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도움받고 기부하고... '푸드마켓'을 아시나요?

"벌써 15년이나 됐지만, 아직 '푸드마켓'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곳이에요. 어르신들이 주로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데, 젊은이들은 상황이 어려워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여유될때 기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박상용 서울광역시푸드뱅크센터 운영관리팀장.

지난 18일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홍보부스를 차리고 '푸드마켓' 알리기에 나선 박상용 서울광역시푸드뱅크센터 운영관리팀장(사진·47)을 만났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과 생필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식품나눔' 활동들을 뜻한다. 푸드뱅크가 무료급식소나 노숙인쉼터 등에 기부식품을 대용량 지원한다면,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물건을 기부받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푸드뱅크·마켓 활동은 1967년 미국에서 세컨드 하베스트(Second Harvest)라는 민간구호단체가 식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처음 시작됐다. 이후 캐나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 등지로 전파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시

개인·기업에 식품 생필품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 지원하는 '식품나눔' 시민에 잘 알려져 확산되길 바라

절인 1998년 서울에서 식품 기부자와 취약계층을 연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전개돼 2003년부터는 푸드마켓 사업도 추가해 확대했다. 기부실적 규모도 그동안 점차 커져갔다. 2015년 400억원에서 2016년 448억, 지난해엔 550억원을 기록했다. 15년 동안 260만 세대에 720억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제공됐다. 푸드뱅크는 서울시 자치구 내 1곳씩 사업장이 마련돼 총 25곳이 가동중이며, 푸드마켓은 32곳이 있다. 이 중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합쳐진 사

업장인 푸드뱅크·마켓도 있다.

푸드뱅크 및 마켓사업은 서울시가 설치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과 관리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도맡고 있다. 박 팀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푸드뱅크, 푸드마켓 시설에 미국의 민간단체나 도쿄도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다. 특히 관에서 지원하며 위탁을 하고 있어, 기부물품의 전달체계가 잘 자리잡고 있는 점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팀장은 "연간 자원봉사자들도 4000명 규모로 참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적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품이 아닌, 기부를 위해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에 기부하는 기업체 중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이마트, 농협 등이 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선진국 사례처럼 기부를 위한 식품 및 물품 생산을 진행해 이 사업에 5년째 동참 중이다.

박 팀장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식품자원을 재활용하면서도 환경보호도 되며 기업에게는 이미지 강화와 폐기물 류비 절감까지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